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 화순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 여성 취업 등용문

취업상담 · 직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One-Stop 제공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조리 시과정, 이종언어교육지도사 과정, 전산회계&멀티사무원 실무과정으로 운영된다.

군은 수강생 100% 수료는 물론, 종강 후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 위해 여성 취·창업교실을 5월부터 7월까지 운영, 직업교육의 목적에 맞는 IT교정과 정리수첩전문과정을 통해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능력향상을 통한 직업훈련으로의 연계 및 취업알선을 위해 200여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이 자신감을 갖고 한국사회에서 취업기술을 이힐 수 있도록 결혼 이주여성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세일센터가 타 일반 취업지원센터와 차별화되는 점은 여성의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은 물론 사후관리 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함께하는 복지를 통해 일·가정 양립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군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들의 취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희망센터(화순읍 대교로 11)에 입주한 새일센터는 2015년 8월에 개소한 이후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취업상담사 4명, 직업상담사 2명이 구직상담, 구인업체의 빌글,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지원 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 및 선호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은 채용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다.

취·창업연계 후에도 취업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새일센터는 지금까지 구인빌글 1,583건, 구직빌글 2,779명, 취창업 1,178명 등 의 실적으로 지난해 전라남도 내 군 단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 26일 개강했다.

오는 8월 30일까지 60명의 경력

### 광양경제청, '건설사업 상생협의체' 구성

발주청과 원·하도급사 수평관계 소통의 장 마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공사중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발주청, 도급사, 하도급사 등이 상생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발주청에서 도급사,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의 일방적인 지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으나, 이렇게 해서는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

하고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수평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함이다.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는 공사 추진 중 나타나는 각종 문제에 빨 빨게 대응해 나가게 되며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건설사업 상생협의체가 활성화 되면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 도급

사와 하도급사의 분쟁, 체불임금 등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던 잡음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지역주민 최우선 채용 공시현장 주변 환경미화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에서 낙찰적 격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기를 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시, 생태미식도시 비전 선포

오는 9일 15시 순천민국가정원 습지센터서

순천시가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의 새로운 소득전략 모델인 '생태미식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태미식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실천의지를 천명한다.

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순천민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생태미식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실천을 선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지역의 미식(美食)'은

여행의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은 생태관광의 메카로서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식도시 추진 필요성의 공감

대에서 출발했다.

생태미식도시는 단순히 식도락(食道樂)의 도시가 아닌 지역의 식문화, 농수산물, 음식이 융합되어 관광으로 선순환 되는 지역의 소득 창출 모델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순천교육지원청, 순천농협, 외식업협회 등과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생태미식도시 실천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한식의 탄생' 작가이자 맛칼럼니스트인 박정배 대표를 초청해 '한식의 역사, 미식문화'라는 주제로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태·환경, 문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시민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식문화가 관광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음식점, 농·수산물 생산자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생태미식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 순천국유림, 산림분야 재해예방사업 상반기 완료 총력

국민의 인명·재산보호 위한 산사태예방시설 확충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분야 재해안전 강화를 위해 국민생활권 중심으로 장마철 이전 6월 말까지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도 재해예방시설은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산림을 대상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1.8km를 실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설계·시공·감

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시공계획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관리소에서 시설·관리하는 사방시설, 산림휴양시설 등 주요 시설물 143개소에 대해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복구와 보강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빠른 현장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장석규 소장은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우기전 완료하여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길 열려

자영업종합지원 협약 체결…소상공인 아카데미 등 서비스 제공



광양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 준비부터 경영안정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3월 29일 시 청년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종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가 창업 후 5

년 이내에 75% 이상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추진해 왔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 내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오는 4월부터 창업상담, 소상공인 아카데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경영자문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기업은행 2층)에는 전담직원이 배치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상담과 경영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최형천 이사장은 "전남 제1의 경제도시인 광양시와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복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 창업자부터 경영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취업 등용문

취업상담 · 직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One-Stop 제공

화순군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들의 취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희망센터(화순읍 대교로 11)에 입주한 새일센터는 2015년 8월에 개소한 이후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취업상담사 4명, 직업상담사 2명이 구직상담, 구인업체의 빌글,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지원 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 및 선호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은 채용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다.

취·창업연계 후에도 취업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새일센터는 지금까지 구인빌글 1,583건, 구직빌글 2,779명, 취창업 1,178명 등 의 실적으로 지난해 전라남도 내 군 단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 26일 개강했다.

오는 8월 30일까지 60명의 경력

시와 하도급사의 분쟁, 체불임금 등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던 잡음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지역주민 최우선 채용 공시현장 주변 환경미화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에서 낙찰적 격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기를 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